

무안 ‘공항도시’·광주 ‘실리콘밸리’ 대전환

‘민간·군공항이전 협의’ 주민설명회

6자 협의체 후 광산구민과 첫 소통

이전 절차 등 계획 공유·의견 수렴

‘광주 군공항 이전(6자 협의체(TF))’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광주시가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음피해지역 및 종전 부지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6자 협의체)’에서 18년 간 표류해온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공식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박군택 국회의원(광산갑),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2023년 광주 군공항특별법 제정, 유치지역 1조원 지원 약속, 광주시-전남도 무안 이전 최종 합의, 소음 피해 대책 토론회 실시, 양부남·박군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

력을 비롯해 공직자 양과 수확 활동, 전통신장 캠페인, 망운면 열린대화방 개소 등 무안 주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올해 21대 대선 공약 제안 등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6자 협의체 구성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무안을 ‘공항도시’로, 광주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의 대전환 비전을 밝혔다.

광주형 실리콘밸리는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직주락(職住樂) 정주여건과 녹지·문화·여가의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행정 조정에 나선다.

강기정 시장은 “누군가는 여전히 군공항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라는 첫 씨앗을 심었듯 지금부터 준비하면 광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된다. 우리 자식, 손자들을 위한 미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무안 통합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 계획이 아니다”며 “그동안 해외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서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높일 광문공항을 여는 것인 만큼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재난·안전·시책사업 속도 낸다

하반기 특교세 45억...올해 총 359억

전남도가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써 올해 전남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총 35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90억원, 재난안전 20억원, 시책 20억원 등 분야별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 15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지도 58호선(보성 복내) 정비사업 15억원, 하천 범람 주

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지·왕곡 만봉천 정비사업 20억원이 포함됐다.

또 도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도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 30억원,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스포츠타운(함평) 조성사업 13억원, 농어업 연구기반 강화와 현장 대응을 위한 원예종자산업 지원센터와 벵장이 인공종자 생산시설 구축 등 2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는 폭우·폭염·대설 등 재난 수요가 늘어 7-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포함해 재난 분야 특별교부세 20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과 재난 현장 신속 복구에 힘을 보탤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사업을 선제 발굴하고 행안부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편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형 실리콘밸리’ 추진 미래도시기획단 출범

市, 정원 동결 속 전략적 재배치

1단·2팀·1TF 신설...내년 시행

광주시는 21일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개 단, 2개 팀, 1개 전담팀(TF)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4천186명으로 동결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미래전략 분야에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먼저 ‘미래도시기획단’을 신설한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확정 이후 군공항 종전부지를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등 미래도시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차산업과에 ‘AI모빌리티신도시팀’을 신설한다.

국정과제인 미래모빌리티 구현, K-AI 시티 실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및 관련 생태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로과의 ‘지하안전팀’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로 이관해 지반침하(싱크홀) 대응과 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며, 농업동물정책과에 ‘공역동물 보호센터팀’을 신설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인구정책담당관에 ‘공공기관이전TF’를 설치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 전문성 점검

시의회 인사청문회...수익구조 등 질의

정 후보 “광주관광 하위권...개선 시급”

광주시의회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정재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관광 전문성, 조직 내 갈등 해소방안, 수익 구조 개선과 공공성·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언론인 출신인 정 후보자의 관광산업 분야 전문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집중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세부 관광 기술보다 조직 안정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이끄는 리더십이 현 시점에서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광주 관광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본다”며 “광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관광 이미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통합 이후 조직 내 인사 갈등과 법적 분쟁과 관련, 정 후보자는 “손해를 봤다는 인식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가

치분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정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거친 뒤 규정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익 구조와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호봉 상승으로 매년 2-3억원씩 고정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대중건벤치센터는 가동률이 이미 높아 추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수기·비수기 대관료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2

2-1 횡단 보도

1-1 횡단 보도

3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CMYK